meritz 조선/기계 Daily

2020. 9. 22 (화)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454-4861
hyun.kim@meritz.co.kr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anker scrapping hits 30-year low as floating storage keeps old ships busy

탱커 해체량이 약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됨. 해상저장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나이 많은 탱커들도 저장용으로 쓸모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보도됨. 2020년 상반기 중 해체나 개조로 탱커 선대에서 빠져나간 선박은 14척으로 110만DWT에 불과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Clarksons Research says orderbook now at lowest point since 1989

전 세계 수주잔량이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됨. 조선업체들이 확보해 놓고 있는 일감은 현 취항 선대의 7.4%에 불과하다고 보도됨. 2020년 초 중국 조선업체들의 조업 중단으로 인도가 지연된 바 있으나 연간 인도량은 8,400만DWT로 전망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Bids delayed for huge Qatari subsea pipelay package

Qatargas가 North Field Sustainability 프로젝트의 해양 파이프 공사(subsea pipelay)의 입찰 스케쥴을 연기했다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EPCI(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공사에 대한 입찰 일정이 최소 10월 중순까지 연기됐다고 보도됨. (Upstream)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입찰 28일로 연기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는 원매자들에게 이달 22일로 예정됐던 예비입찰 날짜를 28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보도됨. 두산 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발목을 잡던 중국법인(DICC) 소송을 떠안기로 하면서 잠재매수자들이 추가분석을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비즈)

동대문 두산타워 8,000억원에 매각

(주)두산은 서울 중구 소재 두산타워 건물을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인 마스턴투자운용에 8,000억원에 매각키로 했다고 공시함. 두산솔루스를 포함해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두산그룹의 자구안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이번 두산타워까지 매각하면서 두산그룹이 마련한 자금은 2조원을 넘는다고 보도됨. (이데일리)

중국 Penglai, MR 탱커 건조 시장 진출

벌크선 전문 건조사로 알려져온 중국의 Penglai Zhongbai Jinglu Ship Industy가 MR탱커 건조시장에 진출한다고 보도됨. 이 조선사는 최근 싱가포르 Raffles Shipping으로부터 50,000DW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함. 척당 선가는 3,300만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